

# 탈골된 문법과 다시 쓰는 역사: 미국시의 지평에서 보는 한국계 미국시의 문화 정치학

정은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1. 들어가는 말

그다지 길지 않은 한국계 미국 문학의 역사에서 한국계 미국 작가들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최근 들어 무척 활발해졌다. 반가운 일이다. 미국 내 소수민족 문학에 대한 논의가 영미비평학계에서 90년대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개진되었고 최근 몇 년간 더 가속화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 현상은 국내 영문학계의 비평 흐름 또한 발 빠르게 영미 본국의 흐름을 따라잡고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그런데 한국계 미국 시인들에 대한 국내의 논의를 들여다보면 소설이나 여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형편이고 더구나 아시아권 문화의 범주 안에서 특히 시에 드러나는 한국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형태로 주로 다루어져왔다. 대개는 '민족'이라는 표제어를 중심으로 미국이라는 다인종 국가 안에서의 자아 찾기라는 관점에서 주로 진행된 논의는,<sup>1)</sup> '그리하여' 한

주 제 어: 탈골된 문법, 문화 정치학, 역사, 표준화, 대안적 재현 형식, 하이픈  
dislocated grammar, cultural politics, history, standardization, alternative forms of representation, hyphen

국계 미국인'이라 할 때 주로 앞의 단어에 방점을 찍는 형태, 즉 한국적인 문화와 역사, 한국인의 정서가 작품 안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를 묻고 있다. 최근 온 나라를 지나치게 떠들썩하게 만든 풋볼 스타 하인즈 워드(Hines Ward)의 방한과 함께 그 얼굴을 여실히 드러낸 핏줄과 뿌리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렬한 집착을 생각해 보면, 문학 비평에서의 이러한 경향성 또한 어느 정도는 수궁이 간다. 실제로 많은 시인들의 작품에서 한국은 여전히 의미 있는 기억의 뒤안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계 미국 여성작가의 경우,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환기되는 민족과 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족과 성이 소수민족 문학을 읽어내는 틀로서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형식과 언어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함께 살리지 못한다면 자칫 시가 문제적인 문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미처 다 살리지 못하는 읽기가 되기 쉽다. 시의 형식적 특징과 주제적 연관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특히 소수민족 문학으로 간주되는 작품들을 민족 중심의 소재주의적 담론에 위치시킬 때 자칫 간과되는 작가의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 문제의식이 미국시의 지평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미국문학 전체의 지평에 한국계 미국 작가들의 작품을 놓고 바라보는 작업은 더욱 절실해진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주로 민족이나 성이라는 다소는 고정된 틀에 의존해 온 한국계 미국시 읽기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작품의 언어적 특

- 
- 1) 테레사 학경 차와 명미 김을 각각 다루는 대표적인 논문으로 임진희의 1996년 글과 장근영의 2004년 글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다. 이 두 논문은 자아, 언어, 국가, 그리고 젠더를 중요한 틀로 해서 테레사 차와 명미 김을 각각 읽고 있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작업은 이들 선행 논문에서 주로 다루어진 정체성의 문제를 배제하기 보다는, 민족 정체성에 방점을 두어 읽혀온 이들 작품들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재현 양식과 비문법적인 언어의 일탈, 파편화된 구조 등에 주목함으로써 현대 미국시의 지평 가운데 이들 시를 위치시키고, 나아가 한국계 미국시가 기여하는 미국시의 문화 정치학적 논의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징, 특히 정례적인 문법에 어긋나는 구문을 즐겨 사용하는 동시대의 대표적인 한국계 미국 작가 두 사람을 언어의 실험성이 현실 인식의 준거로 드러나는 미국시의 커다란 전통과 연계하여 읽고 이러한 시작 기법에 깃들어있는 문화 정치학적 의미를 짚어 보고자한다. 지금까지 괄호로 둘러싸인 채 특수한 미국 문학으로 간주되어 온 한국계 미국시를 미국시 지평 위에서 다시 읽는 작업은, 기존의 소수민족 시학에서 지속되어온 민족과 성에 대한 질문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언어적 정체성에 대한 작가들의 집요한 실험적 질문들을 현대 미국시학의 실험성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렇게 될 때, 이들 시인들의 창조적 근원이 되는 『민족』이라는 거소(居所)가 언어라는 형식,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전통 문법과 어긋나는 형식으로 드러나는 방식을 통하여, 동시대 미국 문학의 지평 위에서 소수 민족 시학을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본다. 괄호로 드러나는 배제나 소외, 충돌의 방식이 아닌 한국계 미국문학(Korean-American) 그 사이 『하이픈』의 의미에 보다 주목하는 대화와 소통의 가능성으로 말이다.

이즈음 미국의 많은 대학 영문과에서 텍스트로 다루어지고 있는 두 작가, 명미 김(Myung Mi Kim, 1958~)과 테레사 학경 차(Theresa Hak Kyung Cha, 1951~1982)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민족과 성을 화두로 하는 환원론적 읽기가 특히 문제가 되는 작가이다. 이 두 작가의 경우 민족과 성이라는 표제어가 다 아우르지 못하는 언어의 실험성과 형식적 난해함으로 인하여 주로 미국 내 소수 민족 여성시인의 정체성 추구가 얼마나 지난한 문제인가 하는 점에 연구의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테레사 차의 『딕테』(Dictee)의 경우, 이 작품을 소설로 봐야할지 시로 봐야할지, 문학 장르 자체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을 텍스트가 꾸준히 무화시키고 있는데, 특히나 정전의 반열에 오른 계기도 미국문학 내부의 자생적인 비평적 관심보다는 90년대 들어 더욱 활발해 진 아시아계 미국 『문화』에 대한 논의에 힘입은 부분이 크다. 국내에서도 소설 평론가들이 먼저 소개한 덕에 대개 산문으로 분류되어 다루어져 온 이 작품은 실험적 소설 같기도 하고 시적 산문 같기도 하고 산문시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시각적인 영상예술에 주목해 온 시인이라고 불리는 작가의 경력에 더해 이 작품은 엄밀

히 따지면 현대 실험적인 산문시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sup>2)</sup> 그도 그럴 것이, 휘트먼 이래로 내려오는 분방한 현대 미국의 자유시 형식이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등을 거쳐 오면서 산문과 운문의 전통적인 구분을 무화시킬 정도로 그 지평이 넓어졌고 동시대 미국 시인 로즈메리 월드롭(Rosmarie Waldrop)을 비롯하여 린 헤지니안(Lyn Hejinian)등 많은 시인들이 테레사 차와 흡사한 방식으로 장르를 가로지르는 산문시를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설전통보다는 시 전통 안에서 논의되는 게 더 나올 것 같다.<sup>3)</sup> 더욱이 『딕테』의 경우, 한국어, 불어, 영어가 혼합된 다양한 언어가 전통적 문법의 틀을 따르지 않는 운문과 산문의 혼합들로 빚어졌고, 다양한 시각 자료에 힘입은 텍스트의 다른 층위들로 인하여, 소설적 내러티브보다는 언어의 실험성을 앞세운 미국시의 전통이 민족이라는 화두와 힘입게 만나는 장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2) 한국계 미국시인이자 비평가로 활동 중인 월터 루가 편집한 아시아계 미국시 선집 『전조들』(1995)에서 테레사 학경 차는 맨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면서 가장 실험적인 작가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명미 김은 소개되지 않았고(등단한 시기의 문제이지 작품 평가에서 배제된 것은 아닌 듯 싶다) 함께 다루어지는 다른 시인들, 진 윤(Jean Yoon)이나 잭넷 최(Jamet Choi) 등은 좀 더 전통적인 서술기법으로 시를 쓰는 시인들이다.

3) 린 헤지니안의 『내 인생』(My Life) (1980)과 로즈메리 월드롭의 『미국의 언어로 들어가는 열쇠』(A Key Into the Language of America) (1994)등이 『딕테』와 유사한 복합적 형식의 산문시이다. 특히 시간의 통시적 서열을 무시하고 비문법적인 구절들의 나열과 반복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억을 재배치하는 린 헤지니안의 자서전적 서술 방식은 『딕테』에서 한국전, 유관순, 작가의 이민 생활 등의 기억이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재편성되는 방식과 흡사하고, 독일에서 이민 와서 미국에 정착한 시인 로즈메리 월드롭의 경우는,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의 1643년 저작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병치의 기법으로 다시 쓴 책 『미국의 언어로 들어가는 열쇠』에서 운문과 산문,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적 이미지, 소리와 의미의 겹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문화 제국주의와 주변부의 문제 등 『딕테』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산문시로 풀어내고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작품 읽기의 탈식민화를 내세워 형식적 연계성에 주목하여 『딕테』를 다른 미국의 현대 시인들과 함께 읽어내는 줄리아나 스파(Juliana Spahr)의 접근법과 통한다. 스파는 『모든 이의 자율성』이라는 책에서, 스타인과 테레사 차, 린 허지니안 등의 실험적 시작품이 보여주는 읽기의 어려움과 비문법적인 형식이 독자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내어 문화정치학적 사유로 “연결해 읽는” 독서 경험으로 다양한 층위의 독자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sup>4)</sup> 스파의 연구가 빛나는 것은 어려움이나 난해함 때문에 독자와 소외된 영역으로 쉽게 치부되는 현대시의 한 방법론을 구체적인 읽기의 경험을 내세워 사상하게 들여다보고, 더욱이 민족이나 성의 담론으로 쉽게 나뉘어 논의되기 힘든 현대 미국시인들을 한 지평에서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스파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되 주로 민족 정체성 탐구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부각된 두 한국계 미국시인의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인데, 비문법성을 앞세운 이들 작품의 언어적인 특징을 미국시사의 한 전통을 잇는 언어시학 안에 함께 위치시키고자 하는 시도

4) 스파의 “연결해 읽기”(connective reading)의 대상이 된 시인들은 여성시인들이 많지만 굳이 스파가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시인들을 선별한 것은 아니다. 스파는 앤 허친슨(Anne Hutchinson),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 프레드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에서부터 거트루드 스타인을 지나 브루스 앤드류스(Bruce Andrews), 해리엇 물런(Harryette Mullen)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성, 민족을 넘어서는 연계적 읽기를 시도한다. “해방의 한 형식”(a form of liberation)으로 시대, 성, 민족의 정체성 시학을 넘어서는 스파의 문제의식을 아우르는 틀은 현대 미국의 언어시파(Language Poetry) 시인들이 공유한 문제의식을 독자를 중심으로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즉 미국의 표준언어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꼬집어내어 언어의 새로움을 통해 현실 인식의 새로움을 일깨우는 방식으로서의 시쓰기가 그것인데, 그런 점에서 언어시운동은 앵글로 어메리칸 전통과도 차별이 되면서 민족이나 성의 구분을 넘어서는 미국적인 시문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언어시운동의 문화적,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즐고 「언어시운동과 찰스 번스틴」, 『21세기 문예이론』 168-175면을 참조.

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미국시 비평 일각에서 테레사 차의 언어형식과 서술 방식에 대해 미국시 전통과 관계 맺는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작업이 이즈음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에 힘입어 가능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후대의 다른 시인들에 이 실험적인 작가가 미친 영향력이 동시대 포스트모던 미국현대시가 품고 있는 가능성과 난제 모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불행하게 삶을 너무 일찍 마감한 테레사 차에 비해 그 후속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명미 김의 경우는, 『깃발 아래』(Under Flag) 이후로 『바운티』(The Bounty) 『커먼즈』(Commons), 『듀라』(Dura) 등의 잇따른 창작시집으로 미국시단에서 비평적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시인인데, 이 두 작가의 작품에 따라다니는 ‘실험성’과 ‘난해함’은 사실 한국계 미국작가들에 주목하는 동시대 비평가들에게는 큰 난제를 안겨주었다. 특히 전통적인 영문법에서 이탈된 형태로 자주 진행되는 이들 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 참을성이 적은 독자들은 대표적인 한국계 미국 소설가 이창래(Chang-Rae Lee)나 수전 최(Susan Choi)와 이들 작품들을 비교하여 이 문제적인 시인들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깊이 없는 혼란을 증명한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모호한 비문법성이 비단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으로 국한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시의 큰 지도를 놓고 본다면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을 비롯하여 현대의 린 헤지니안(Lyn Hejinian)에 이르기까지 영어의 표준문법이 대표하는 언어적 권위에 저항하는 어떤 전통 안에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명미 김은 인터뷰에서 유독 한국계 독자들에게서 자주 주어지는 질문들, 가령,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너무 모호하지 않은가?” 라든가 “소설가 창래와 비교했을 때 당신의 시는 무척 어려운데, 그 난해함이 당신의 민족적 정체성의 효과적인 재현을 혹 가로막지는 않은가?” 등에 어린 한국적 정체성에 대한 당위성을 묻는 질문이 때로는 난처하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이 난처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미국의 1·5세대 시인, 혹은 2세대 작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질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작품을 논의할 때 작가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얼마만큼 닿아있는 것일까? 전통적인 서사구조와는 확연히 다른 두 대표적인 한국계 미

국시인들의 예술 방식이 ‘소수민족 시학’<sup>5)</sup>이나 미국시의 전통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일까? 이 관계를 모색하는 작업이 우리 시대 미국시의 지평을 점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과 함께 지금 세대 대표적인 한국계 미국 시인으로 거론되는 명미 김과, 『딕테』라는 작품으로 이미 정전의 반열에 올랐다 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한국계 미국작가 테레사 학경 차의 작품을 함께 읽는 작업은, 이들의 작품을 특징짓는 ‘난해함,’ 가령 탈문법, 탈서사적인 언어 형식, 전통적인 시공간의 지형을 거스르는 이들 시인들의 독특한 예술 방식을 들여다봄으로써 현대 미국시의 지형을 더듬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계 미국시인의 작품을 한국적 정서에 쉽게 귀착시키고픈 독자들의 일차적인 취향에는 저항하는 읽기 방식이겠지만, 표준 영어의 문법과 문장의 규범에 어긋난 ‘탈골된 문법’으로 이들 시인들이 다시 써나간 역사의 한 장을 미국시사 속에서 바라보는 장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국 내 소수 민족 시학이 ‘앵글로 아메리칸’ 전통과는 대별되는 하나의 작은 ‘다른’ 흐름으로서만

- 
- 5) 국내에는 제롬 로젠버그(Jerome Rosenberg)가 주창하는 ‘민족 시학’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실린 글이 소개된 바 있다. 『문학사상』 2005년 3월호에 실린 고은 시인과 로젠버그의 대담을 참조할 것. 그런데, “Ethno Poetics” 혹은 “Ethno Literature”를 한국어로 옮길 때 흔히 말하듯, ‘소수 민족’ 시학/문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수를 뺀 ‘민족 시학,’ 그러니까 미국내 앵글로 어메리칸과 아프리카계 미국 문학을 제외한 여타의 다른 ‘민족 시학’이라고 옮기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중국계 미국인들의 시를 소수 민족시라 부를 때 생기는 이상한 의미 변형 같은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특히 민족 시학은 현대 미국의 실천적, 진보적인 시운동 흐름인 언어시파(Language Poetry) 시인들 안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 점을 감안한다면 영미문학, 특히 시에 있어서 ‘민족’의 문제는 생각만큼 그리 분명하게 혈통에 의해 선이 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 시학’을 따로 떼어서 읽는 것도 어느 시점에서 중요한 작업이지만 결국에는 미국시 전체의 지도 안에 놓고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6) 가령 미국영어영문학회의 연례 학술대회에서조차 아시아계 문학을 다루는 세션은 특별 세션으로 종종 분류되는데, 이 특별함이야말로 또다른 차별을 증명

논의될 때<sup>6)</sup> 그 차이는 자칫, 또 다른 차별성의 근거로 역이용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시의 전통 안에서 한국계 미국시인들의 자리를 매기는 작업은, 어쩌면 핏줄의 당김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에 대한 탐색과 연결되며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당한 비평적 거리를 확보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주로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틀 안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이 두 작가에 대한 비평적 관심을 작품의 형식적 특징으로 되돌려 그 특징들이 미국시의 전통과 만나고 갈라지는 변주의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산(diaspora)의 기억을 간직한 한국계 미국인들의 시어가 미국시의 큰 전통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그 공간은 문화정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 2. 허의 기억, 혹은 언어 사이

『딕테』가 1982년 처음 출판되었을 때, 이 작품은 공동체 의식과 페미니즘 의식이 결여된 작품으로 간주되었고 그 시각예술과 언어예술을 과감히 가로지르는 실험성 또한 너무나 앵글로 아메리칸적 색채를 풍기는 작품으로 분류되어 아시아계 독자들에게 외면당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계 이민 여성으로서 겪었으리라 여겨지는 자서전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 비평이나 포스트모던 실험성에 기반한 독특한 시적 호소력을 중시하는 비평 모두, 각각이 지닌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한데 모아져서 이야기되는 마당이 지금껏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민족과 여성을 내세워 작품의 자서전적 요소를 중시한 소재주의적 비평이 『딕테』가 제시하는 작품의 실험성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면,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강조한 초기 비평, 가령, 1984년 최초로 딕테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마이클 스티븐스(Michale Stephens)나 스티븐 폴 마틴(Stephen-Paul Martin) 등은 이 작품을 반남성적 페미니즘 작품으로 단순화

---

해 보이는 예가 아닐 수 없다.

함으로써 정치적 시사성을 오히려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이 강(Hyun Yi Kang)이 이야기하듯, 여성으로서든, 한국계 이민자로서든 『딕테』에 드러나는 정체성의 문제와 역사를 환기하는 방식은 매우 강렬하지만 동시에 매우 “유동적이고 이질적”이다.<sup>7)</sup> 이 유동성과 이질성을 포스트모던 이주 문학의 전형적인 해체의 담론으로 볼지 혹은, 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무너뜨리면서 작가가 던지는 문제의식에 독자를 과감히 초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출발점으로 볼지는 언어를 매개로 하되 기존 문법의 틀을 벗어던지고 진행되는 이 작품의 독특한 서사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리사 로우(Lisa Rowe)는, “『딕테』는 주류 문화가 주변을 검토하여 만들어진 것이든, 또는 사회적으로 부상하려는 소수민족이 단일한 민족적, 문화적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데서 나온 것이든, 민족적 정체성을 추출해내려는 독자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좌절시킨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36), 단일한 정체성에 대한 독자들의 욕망을 계속하여 좌절시키는 이 힘이야말로, 어쩌면 비문법성에 기댄 『딕테』의 형식적 특징을 단순한 해체의 전략이 아닌, 정치적 저항의 목소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며, 동시대 실험적인 미국시가 통일된 문법이 지닌 권위를 새롭게 질문하는 방식과 통하는 사유의 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

갑작스런 사고로 『딕테』가 출판된 바로 그 해 세상을 뜬 테레사 차와 달리 지금도 지속적으로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 김에 오면, 모국어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하여 역사를 새롭게 직조하는 방식이 테레사 차와 닮아 있지만 독자들의 당혹감은 어쩌면 더 깊어지는 듯하다. 명미 김이 미국시사에서 갖는 위치는 실로 독특한데, 9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 미국 시단의 대표적인 한국계 미국 시인으로 자리를 굳힌 그의 시는 흔히 이야기되는 민족 시학의 범주 안으로 편안하게 포섭되지 않는다. 현대 미국시의 지평에서 명미 김의 시는 사실 “한국계”라는 따옴표를 붙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조차 의견

7) Hyun Yi Kang, “The Liberatory Voice in Theresa Hak Kyung Cha’s *Dictée*” *Writing Self/ Writing Nation*, 98면.

이 엇갈리고 오히려 현대 미국시의 대표적 흐름인 언어시파(Language Poetry)의 시인들과 주로 같이 거론된다. 하지만 민족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고 그의 작품을 읽는 것도 오도된 읽기일 가능성이 큰데, 이는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시인의 질문이 『역사 다시 쓰기』의 방식으로 작품 안에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민족의식을 재구성하고 역사를 다시 쓰는 방법에 있어서 그의 시는 전통적인 영문법을 자주 벗어나고 때로 서사적 위계질서를 거스르기에 그의 시는 영미시의 앵글로 어메리칸적 전통, 민족시학 어느 쪽에도 편안히 포섭되지 않는다. 명미 김의 작품을 혹자는 『역사를 담은 시』라고 부르기도 하고<sup>8)</sup> 테레사 차에 버금가는 실험시인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sup>9)</sup> 명미 김의 시를 어떤 범주에 가볍게 포함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의 시의 난해함, 독자의 손쉬운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텍스트의 저항감은 우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때로 포스트모던 문화현상의 일부로 치부되면서 시의 소외나 시의 실종에 대한 당연한, 혹은 정당한 이유로 내세워지기도 하는 그 난해함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난해함을 독자를 고려하지 않는 지적인 편향성으로 치부해버리기보다는 그 난해함을 읽어낼 수 있는 길을 더듬어 찾아나가는 것이 비평 작업이 지닌 큰 책무가 아닌가 싶다. 이는 현대시의 실험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도 잇닿아 있으며 다른 한 편, 민족의 이야기, 다시 쓰는 역사로서의 시쓰기가 정통 서사기법과 어떤 다른 방식으로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지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되기도

8) Eliot Weinberger, *Written Reaction: Poetics, Politics, Polemics 1979~1995*(New York: Marsilio Publisher, 1996) 181면.

9) 한국계미국인으로서는 문학, 문화 비평가로 자리잡은 일레인 김(Elaine H. Kim)은 이민 1.5세대인 명미 김의 시어가 영어와 한국어 사이 어디에도 온전히 안주할 수 없는 독특한 언어적 자각에서 탄생한 것임을 지적한다. 즉 각각의 언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완전한 형태로 전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자각이다. Elaine H. Kim, "Korean American Literature," *An Interethnic Companion to Asian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Cambridge UP, 1997) 176면.

한다.

1991년 발표된 명미 김의 첫 번째 시집 『깃발 밑에서』는 여러 면에서 명미 김의 시적 여정에서 두드러지는 실험적 특징을 잘 드러내준다. 이 시집에 실린 첫 번째 시, 「그리고 우리 노래를」은 새로운 터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나가야 하는 이민자의 이산의 체험이 사회적, 역사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상실의 기억보다는 언어를 새롭게 체득해야하는 혀의 기억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이 그렇게 진실되게 울려야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노래해야만 한다

그 너른 거리를 가로질러  
그러면 그 때 우린 더 가까이 있게 될지도

바다는 무엇이 될까 우리가 그 가까이 있었다면

목소리  
아래쪽을 붙잡아 뒤로 잡아 끌어당겨

우린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나 엔 에이치 쥐

- 
- 10) Myung Mi Kim, *Under Flag* (Berkeley: Kelsey St. Press, 1991) 13면. 앞으로 명미 김의 시 인용은 이 책의 페이지 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번역하기가 다소는 난해한 텍스트의 성격을 고려하여 원문을 실자면 다음과 같다.

Must it ring so true

So we must sing it

To span even yawning distance

And would we be near then

What would the sea be, if we near it

소리내어 말하면 그것은 제 때에 나는 소리<sup>10)</sup>

물론 이 시가 상기시키는 혀의 기억이 시인 개인의 사적 체험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쉽게 상기시키는 심리학적인 비평을 끌어올 필요는 더더욱 없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두 언어사이의 충돌을 경험한 독자라면 누구나 체득하였을 혀의 고집과 혀의 유연함 사이의 갈등에 대한,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경험의 한 형태로서 기억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시에서 '우리' 라는 대명사를 통해, 그 혀의 기억에 공동의 정체성을 묻어오는데, 영어를 말해야 하는 모든 이민자의 어색함이, 어눌함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소리, 엔, 에이치, 쥐를 통해서 환기된다. 나이 들어 혀가 하나의 언어에 익숙해진 후 영어를 제2의 언어로 배운 자라면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독특한 점은, 이 시의 "우리"가 단순히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뜻한다기보다 영어를 새롭게 배워나가야 하는 모든 이민자들까지도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설가 이창래가 『원어민』(Native Speaker)에서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민자의 고충, 아니 혀의 고충을 "부비 트랩에 갇혀 죽어가는 동물"(like an animal booby-trapped and dying<sup>11)</sup>)의 처절한 사투와 연결 지어 그 뻗뻗함을 호소할 때와는 사뭇 다른 어조로 명미감은 '우리'가 목소리를 획득하는 방법론적 과정에 주목한다. 이 과정은 나아가 "그러한 집단 속으로"라는 시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되는데,

아니, 프, 프, 혀를 입천장에 대고 윗이빨 뒤에다 약간 붙이고서 아랫니를 혀에 닿을라말라하고 끌어당기고 숨을 내쉬어 봐. 그럼 진동하는 혀느낌이 올거야. 프 프 거울을 봐. 한결 낯지.(30)

---

Voice

It catches its underside and drags it back

What sound do we make, "n," "h," "g"

Speak and it is sound in time

11) Chang-Rae Lee, *Native Speaker*(New York: Riverhead Books, 1995) 233면.

라고 이야기할 때, 독자는 새로운 언어를 이식하고자 애쓰는 혀의 인간됨에 주목하게 된다. 이민을 통해서 잘려나간 상실된 역사의 기억을 불러오는 대신 언어를 배우는 혀, 입의 체험을 통해서 시인은 이산의 아픔이 다른 언어에 새롭게 접붙이는 혀의 고통에 다른 아픔을 드러내 보인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에서의 “거리”(distance)는, 낯선 땅으로 건너감으로써 생겨나는 물리적인 거리이기도 한 동시에 이민으로 인해 경험하는 영어와 한국어 사이, 그 어정쩡하고 긴장된 혀의 아래쪽과 뒤의 거리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낯선 경험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시인은 독자가 기대하는 정연한 문법의 틀을 과감히 거부한다. 말하자면, 명사와 대명사 사이의 지시성을 흐려 놓거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쓰면서도 시공간의 거리를 뛰어넘고 때로 뒤집는 방식, 그리고 동사의 시제를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만드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시집 전체에서 “거리”는 여러 번 반복되어서 환기되는데, 그 반복은 시, 공간적 거리에서부터 전쟁과 이민, 혹은 한국인으로 불리는 어떤 민족 안의 나와 당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개체간의 거리를 뜻하기도 하는, 다층적이면서도 불투명한 지시어로 행사한다. 아울러 주어, 동사의 어순을 바꾸고 단어와 단어 사이, 행과 행 사이, 연과 연 사이의 거리를 자유롭게 배치시키는데서 생겨나는 의미들의 서로 다른 거리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겨나는 의미의 서로 다른 층위는 무엇보다 이산의 경험으로 인한 언어의 틈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백을 중시하는 현대적 운율미의 한 형식일 수도 있다. 시집의 표제시인 「깃발 밑에서」는 이 거리와 부름이 이산의 다른 표현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예가 된다. 시의 제목 「깃발 밑에서」에 이어지는 도입부는 다소 급격하게, “있다/이다”라는 동사와 함께 시작한다.

거리가 있다. 만약 그녀가

똑같은 거북을 낚으려고 연못으로 깃발을 던지고 또 던진 것을 안다면  
정복당하고 일그러진 국경선에 에워싸인 그 거북을(16)<sup>12)</sup>

이 시에서 깃발은 무얼 의미하며, 거리는 또 무엇을 그리고 그녀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각각의 단어가 지칭하는 의미는 다소 모호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명미 김의 시가 지닌 난해함은 일차적으로 영어의 기본 문법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데, (언뜻 보면 테레사 학경 차만큼 과격하진 않는데 단정한 의미 규정은 더 어려워지는 듯한) 문장에서 주어 동사의 관계라든가 명사와 대명사와의 관계를 흐리고 만들고 모호한 지시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시에서 의미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무척이나 어렵게 만든다. 이 시에서 깃발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독자의 적극적인, 다소는 자의적일 수 있는 유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인데, 거북이 거북선을 상기시킨다고 본다면, 이 깃발은 침략의 깃발로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작품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임진왜란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침략군의 깃발뿐만 아니라 작가가 가족의 이민이라는 방식으로 건너가서 마주하게 되는 다른 나라의 깃발, 그 밑에서 다른 언어, 다른 경험을 익혀나가는 다른 땅의 법칙까지도 일컫는 비유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명미 김의 시를 읽어나가는데 있어 독자가 마주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문법에 어긋나는 구문 때문만은 아니다. 「깃발 밑에서」에서 볼 수 있듯, 명미 김의 시는 『덕테』와 마찬가지로, 또 린 허지니안이나 수전 하우 등 많은 동시대 실험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학 장르와 갖가지 다른 형식이 하나의

12) 이탤릭체로 씌어진 제목 “Under Flag” 바로 아래로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Is distance. If she knows it

Casting and again casting into the pond to hook the same turtle

Beset by borders conquered, disfigured

13) 9살에 한국어에서 영어로 뿌리를 옮겨간 경험치고는 모국어어를 잘 간직하고 있는 명미 김은 자신의 첫 시집이 한국에서 “깃발 아래”로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 “깃발 밑에서”가 더 정확한 번역일 거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아래”보다는 “밑”이 상하, 권위 혹은 서열상의 굴종의 의미를 더 살린다는 차원에서이다.

작품 안에 뒤섞인 형태를 띤다. 전운이 다친 한국의 시골 마을 풍경이 “초가집”과 그 초가집 아래 “뜨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두르고 앉아 있는 집안 어른들”의 모습에 대한 회상어린 서정적 기억이, “피란을 떠나는 흰 옷 입은 행렬들,” 그리고 “155밀리 포탄”이 발사되는 등의 사실적인 묘사와 맞물리면서 마치 다큐멘터리 필름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한 서사적인 장면들을 연출한다. 더불어, 역사적 기억을 재현하는 방식으로서 『전쟁』은 명미 김의 시에서 단지 6·25만 일컫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 역사에서 시인이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모국의 수많은 다른 겹의 전쟁을 동시에 일컫는 것임은 시의 뒷부분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밀려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멀다. 만약 그녀가 알 수 있다면  
거리를 따라 행진하는 시민들  
피로 새겨진 요구사항들  
지도자는 그들을 최루탄으로 맞받아쳐  
군중들의 갈망을 일그러뜨리고  
그들은 흩어진다. 흰 천, 얼굴에 쓰고, (18)

미 육군 6·25 전쟁 공문서나 신문의 한 부분에서 발췌한 듯 여겨지는 객관적인 목소리를 띤(그러나 지극히 편파적인) 전쟁 보고서가 한국군의 정신적 해이와 미 육군의 험악한 공과를 치하하고 나서, 시는 거리의 가두행진으로 다시 이어진다. 무기력하게 도망간 한국군에 비해 미 육군은 놀라운 공과를 올렸다고 묘사되는 이 부분에서 어떤 독자는 시인 명미 김의 ‘편향된’ 시선을 읽어내기도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오히려 정통 역사 서술 방식에 대한 일종의 ‘시적인 아이러니’로 이해함이 더 옳을 듯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 시인은 역사를 기술하는 주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서술이 역사서에 기술될 때와 시 안에 투입되어 재현될 때 드러나는 상이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다시 등장하는 거리(Is distance, ‘멀다’로 번역된 부분)

는, 시집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거리에 대한, 그리고 깃발 아래 수직적인 거리인지 아니면 사람들 사이, 역사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간극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불명확한 시/공간은 시인이 기술하는 불명확한 대명사의 지시성과도 통하고, 시인이 빈 공간으로 자주 거리를 두는 텍스트의 공간 배열 방식과도 연결이 된다.

우리가 거기에서 만난다면 우리가 서로 무엇으로 불러야만 하는지  
형제 자매 이웃 연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고 내버려두자  
수천 수만 개의 이름들  
성(姓)은 말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두자 (19)<sup>14)</sup>

여기에서 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분명하지 않다. 이산의 지점인 38선이라고 주장하는 평자도 있고<sup>15)</sup> 우리가 늘 걸어 다니는, 익명의 공간, 도시의 어느 거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상상 속 미지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 이름을 성을 말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다. 말하기, 즉 언술의 지시성을 밀쳐내는 이 행위는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말하기가 된다. 말을 거부하는 침묵의 언어가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하게 하는 것, 그런 점에서 명미 김의 언어는 전쟁의 참상이 훑어간 어떤 기억의 자락을 이 말하지 않는 행위 안에서

---

14)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at must we call each other if we meet there  
Brother sister neighbor lover go unsaid what we are  
Tens of thousands of names  
Go unsaid the family name

15) Laura Hyun Yi Kang, "Compositional Struggles: Re-membering Korean/American Women," *Compositional Struggles: Enfiguring Asian/American Women*(Durham: Duke UP, 2002) 240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침묵 속에 환기되는 이 새로운 의사 소통 방식에도 불구하고, 산문과 운문, 짧은 행과 긴 행의 불규칙한 배열로 이루어진 명미 김의 시는, 테레사 차가 『딕테』에서 시도한 장르의 혼성에 대한 실험성과도 흡사하며 바로 그 불규칙함 때문에 독자와의 거리감 또한 쉽게 만들어낸다. 그러나 줄리아나 스파에 따르면, 테레사 차의 『딕테』나 명미 김의 시작품 등을 비롯하여, 현대의 실험 시들이 보여주는 형식의 낯섦, 그 거리감은 포스트모던 문화의 깊이없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기보다는 거꾸로 독자를 적극적인 읽기 행위로 초대하는 효과를 낳는다.<sup>16)</sup> 20세기 초 거트루드 스타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실험적 여성 시인들의 계보를 추적하는 스파의 연구는, 프레드릭 제머슨(Frederic Jameson)이 “새로운 류의 평이함, 깊이 없음, 새로운 종류의 피상적인 작품의 출현”이란 말로 포스트모던 문학 작품의 깊이 없는 혼란을 언급한 후,<sup>17)</sup> 거역할 수 없는 명제처럼 굳어진 현대의 낯선 실험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독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연결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척 시사적이다.

명미 김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이산의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두 언어의 틈새에 끼인 혀의 기억을 전쟁과 투쟁, 그리고 굴종과 저항으로 얼룩진

---

14)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at must we call each other if we meet there  
 Brother sister neighbor lover go unsaid what we are  
 Tens of thousands of names  
 Go unsaid the family name

15) Laura Hyun Yi Kang, “Compositional Struggles: Re-membering Korean/American Women,” *Compositional Struggles: Enfiguring Asian/American Women*(Durham: Duke UP, 2002) 240면.

16) Juliana Spahr, “Postmodernism, Readers, and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College Literature* (1997) 24면.

17) Frede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Duke UP, 1991) 9면.

18) 앞서 언급했듯이 “The demoralized ROK troops disappeared but the handful of

역사의 한 장과 병치시키면서 공적인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저항하는 방식<sup>18)</sup>으로 시언어를 만들어내었다면, 테레사 학경 차의『딕테』(1982)는 한국어와 불어, 영어, 세 개의 언어가 어우러져 춤추는 한층 발달한 언어 공간에서 독자를 만난다. 한국어에서 불어로, 다시 영어로 이어지는 언어의 중첩된 기억 속에서 테레사 차가 건져 올리는 역사의 장면들은 유관순 언니에서부터 자신의 어머니, 또 받아쓰기를 배우는 자신 등 여러 세대, 여러 공간에 걸쳐 있다. 비록 11살 때 떠난 고국이지만, 작가에게 한국은 여전히 살아 있는 나라이다. 『딕테』를 읽은 경험을 두고 후자는 ‘관객모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sup>19)</sup> 이는 『딕테』라는 시적 공간이 일차적으로 독자와 맞닥뜨렸을 때 독자에게 요구되는 엄청난 참을성 때문일 것이다. 의미를 건져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난해함과 문법의 일탈을 견뎌내면서 버티어 읽는 참을성 말이다. 책장을 여는 독자가 마주치는 첫 장은 글씨가 아닌 얼핏 판화 같은, 끌로 파여

---

Americans, completely surrounded, held out for seven hours against continuous attack, until all ammunition was exhausted”로 나열된 공적인 戰史(*Under Flag*, 17)는 시 전체의 흐름 안에서 볼 때, 결과로서의 공적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봐야 한다. 즉 한국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조종해 온 지배자의 논리가 드러난 역사 서술방식 자체에 대한 코믹한 아이러니이자 조롱으로 읽힌다.

- 19) 이는 2004년 8월 18일자 [창작과 비평사]의 인터넷 게시판 독자마당에서 우연히 건진 표현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성격상 진지한 작품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넛”이라는 자못 심각한 필명을 단 그 독자는 브레히트, 루카치, 비트겐슈타인 등 여러 거장 비평가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딕테』에 대해(다소 산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끝내는 단호하게 “딕테, 거기에 내가 만날 언어는 없었노라고.”라고 마침표를 찍는다. 비공식적인 장에서 만난 독자의 반응을 굳이 본고에 인용한 이유는, 여기에서 비춰지는 호기심과 거부감이 실은 이 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많은 독자들이 『딕테』에 대해 갖고 있었던/여전히 갖고 있는 당혹감을 어느 정도는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참을성 없는, 아니 웬만큼 참을성 많은 독자라 하더라도 『딕테』라는 텍스트가 보여주는 파편화나 다성적 목소리, 일관된 서사에 대한 완강한 거부를 현대 포스트모던 시학의 난해함에 대한 예로 손쉽게 들 수 있을 듯 싶다.

진 글씨에 대한 희미한 사진이다. “어머니 보고 싶어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비뚤비뚤한 필체는 일제 시대 징용에 끌려간 한국인 노무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어권 독자에겐 검은 바탕 위 흰 색깔의 낯선 ‘기호’로만 다가올 이 구문은 한국어를 아는 독자에겐 너 나 할 것 없이, 쓰라리고 아픈 역사의 원체힘으로 각인될 것이다. 다음 장을 넘겨, “살보다 더 적나라하고 뼈보다 더 강하며 힘줄보다 더 질기고, 신경보다 더 예민한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May I write words more naked than flesh, stronger than bone, more resilient than sinew, sensitive than nerve)이라는 사포의 말을 빌린 서문과 만나면서 첫 페이지의 그림 같은 사진이 남기는 효과는 배가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비로소 등장하는 이 책의 차례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말들의 나열이다.

클리오 역사 / 칼리오페 서사시 / 우라니아 천문학  
 멜포메네 비극 / 에라토 연애시 / 엘리테레 서정시  
 탈리아 희극 / 텔프시코레 합창 무용 / 폴림니아 성시(ii)<sup>20)</sup>

시이기도 하고, 소설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일기이기도 하고, 무의미한 독백이기도 하고, 그림이기도 하고, 기호이기도 하고, 사진이기도 한 텍스트의 복합성과도 맞물리며, 『딕테』는 페이지를 넘기는 굵이굵이마다 어렵게 독자와 만난다.

20) 원문은 다음과 같다.

CLIO	HISTORY
CALLIOPE	EPIC POETRY
URANIA	ASTRONOMY
MELPOMENE	TRAGEDY
ERATO	LOVE POETRY
ELITERE	LYRIC POETRY
THALIA	COMEDY
TERPSICHORE	CHORAL DANCE
POLYMNIA	SACRED POETRY

문단 열고 그 날은 첫 날이었다. 마침표  
 그녀는 먼 곳에서부터 왔다 마침표 오늘 저녁 식탁에서  
 쉼표 가족들은 물을 것이다 쉼표 따옴표 열고  
 첫 날인데 어땠어 물음표 따옴표 닫을 것 적어도 가능한 한  
 최소한의 말을 하기 위해 쉼표 대답은 이럴 것이다  
 따옴표 열고 한 가지 밖에 없어요 마침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침표 멀리서 온 마침표  
 따옴표 닫고<sup>21)</sup>

먼저 불어로 씌어지고 다음으로 영어로 씌어진 원문을 한글로 옮기는 것은 두 겹의 전이과정을 거치는 것이지만, 오히려 초등학교 영어 문법시간의 받아 쓰기 과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원문의 어감을 오히려 더 실감나게 전하는 듯도 하다. 이민의 경험을 통해 한국어에서 불어, 다시 영어로 옮겨간 그의 언어 계보는 여기서 거꾸로 반복되는데, 『딕테』의 탈문법적인 구문들은 모두 언어상실에서 말하는 능력, 읽고 쓰는 능력을 얻기 위한 시도를 자기만의 언어로, 나아가 자기만의 이미지로 다시금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그녀는 그들의 문장 부호를 점검할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봉사하기 위해 기다린다. 그들의 것들. 문장 부호. 그녀는, 자신이, 경계의 표시가 될

---

21) Theresa Hak Kyung Cha, *Dictee*(Berkeley: Third Woman Press, 1995) 이후 작품 인용은 이 책의 페이지 수만 표기하고 원문은 각주로 달기로 한다.

Open paragraph It was the first day period She had come from a far period tonight at dinner comma the families would ask comma open quotation marks How was the first day interrogarion mark close quotation marks at least to say the least of it possible comma the answer would be open quotation marks there is but one thing period There is someone period From a far period close quotations marks

22) *She would take on their punctuation. She waits to service this. Theirs.*

것이다. 그것을 흡수하라.<sup>22)</sup>

『딕테』에서 작가의 언술 행위는 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거꾸로 “감지할 수 없게” 아니, “겨우 감지할 수 있도록”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언어 사이에서 고투하는 명미 김 시의 혀의 기억과 닮아 있다. 아울러, 그 고투는 자신을 이뤄낸, 스스로는 떠나왔지만, 그 뼈와 살이 닿아 있는 모국의 형클어진 역사를 바로 잡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형클어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기억은 보존되어 남아 있는 것보다는 잘려져 나간, 떨어져 나간, 잃어버린 형상에서 거꾸로 돌아나고 질서 없이 거칠게 돌아나는 기억의 막강한 생명력 안에서 역사는 다시, 토막토막 잘린 언어로, 쓰여진다.

목이 잘려진 형상들. 낡은, 흥진, 이전의 형상의 과거의 기록, 현재의 형상은 정면으로 대면해보면 빠진 것, 없는 것을 드러낸다. 나머지라고 말-해-질, 기억. 그러나 나머지가 전부다.

기억이 전부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열망. 빠진 것을 지킨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부정의 사이에 고정되어 진보의 표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는다. 단지.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없다. (38)<sup>23)</sup>

오른쪽 옆 페이지에 흰 옷 입고, 눈을 흰 천으로 가리운 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는 충격적인 사진과 나란히 명시된 이 글들은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하

---

*Punctuation. She would become, herself, demarcations. Absorb it.*

23) The decapitated forms, Worm. Marred, recording a past, of previous forms. The present form face to face reveals the missing, the absent. Would-be-said remnant, memory. But the remnant is the whole.

The memory is the entire. The longing in the face of the lost. Maintains the missing. Fixed between the wax and wane indefinite not a sign of progress. All else age, in time. Except. Some are without.

지 않은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으로 독자를 인도한다. 그 역사 안에서 죽은 자는 말을 하지 않지만, 받아쓰는 시인의 균열된 언어는 거꾸로 말을 한다.

죽은 말. 죽은 언어. 말하는 여자로부터. 시간의 기억 속에 매장된. 휴지 중인. 말해지지 않는. 역사. 과거. 말하는 여자로 하여금, 아홉 낮과 아홉 밤을 기다리는 어머니인 말하는 여자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라. 다시 기억하게 하라. 말하는 여자로 하여금.(133)<sup>24)</sup>

여기에서 똑 똑 단절된 형태로 힘겹게 드러나는 시적 언어는 “시간의 기억 속에 매장된” 어떤 “말해지지 않는 역사. 과거를 말하게”하면서 그동안 시인의 내면 속에 억압적으로 체화된 역사가 남긴 상흔을 드러내 보인다. 『받아쓰기』라는 가장 견고한 억압의 형태로 자리하는 언어가 역사가, 그 단절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다시 발견하고 다시 기억하는 행위로서의 시는 갑작스런 생략, 파열, 논리의 결여 등 파괴적인 언어 행위 안에서 그 의미를 되찾는다. 명미 김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힘과 권위, 지배와 피지배의 형태로 견고하게 자리 잡힌 질서 내에서 ‘공적인 역사쓰기’가 지닌 뒤틀린 시각의 한 단면을 역사와 픽션이 뒤섞여 병치된 시적 형상화를 통해 바로 잡아 보여주었다면, 테레사 차는 보여지는 것보다 은폐되어왔던 것, 찾아진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유배된 말들의 불규칙 속에, 질서가 빠진 탈골된 언어의 망 속에서 『딕테』의 불완전한 글들은 역사 ‘받아쓰기’가 아닌 역사 ‘다시 쓰기’가 된다.

---

24) Dead words. Dead tongue. From disuse. Buried in Time's memory. Unemployed. Unspoken. History. Past. Let the one who is disease, one who is mother who waits nine days and nine nights be found. Restore memory. Let the one who is disease.

### 3. 사이, 틈새에서 자라는 시의 언어

셸리 웡(Shelley Wong)이 지적하듯, 『딕테』에서 서로 다른 문학 장르들, 때로 영화적인 기법을 닮은 여러 혼성의 문학 양식들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장르들을 파고들으로써 서로를 비판하는 양상을 띤다. 따라서 테레사 차의 작업은 문학 장르가 가치중립적인 의미의 심미적 관행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인 생산과정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형식적 구조 물임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술작품의 재현 방식을 재발견한다.<sup>25)</sup> 이런 지적은 테레사 차의 창작 기법이 미국 현대의 ‘언어시’ 전통과 맞닿아 있는 지점을 선명하게 비춘다. 즉, 한국인 순교자들이 즐비한 사진에서부터 목구멍의 발성구조를 잘 보여주는 그림, 나아가 습작기 『딕테』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갈겨쓴 글씨를 그대로 담은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글씨와 그림, 사진 등 여러 장르가 섞인 채 종이 위에서 가능한 재현의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는 『딕테』의 형식적 특징은 스티브 맥카프리(Steve McCaffery)의 『판옵티콘』의 제작 방식과도 흡사하고 수전 하우의 시각 예술로서의 시형식과도 통한다.

나아가, 테레사 학경 차와 명미 김의 탈골된 문법은, 일탈, 혹은 파격으로서의 언어 형식이 미국의 신형식주의나 단힌 형식을 대신하여, 그리고 규칙적인 영어 구문에 내포된 이념적인 권위에 맞서서 시가 어떻게 대안적인 새로운 사고를 열어나갈 수 있을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 브라이언 스티븐즈(Brian Kim Stefans)는 북미대륙에서 테레사 차와 명미 김을 위시하여 미국내 아시아계 작가들에 의해 시도된 형클어진 문법의 시들이 주류 문화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하는 하나의 적극적인 대안으로 사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25) Shelley Sunn Wong, “Unnaming the Same: Theresa Hak Kyung Cha’s Dictée,” *Writing Self, Writing Nation*, ed. Elaine H. Kim and Norma Alarcon(Berkeley: Third Woman Press, 1994) 103-142면 참조.

주장은 현이 강(L. Hyun Yi Kang)이 『딕테』에서 민족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해방적인 목소리를 찾아낼 때나, 원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서 쓰는 운명에 처한 받아쓰기가 결정적으로 원 텍스트를 불충하고 배반함으로써 더욱 창조적인 영역을 열어간다고 본 평자들에게서나 공히 거론되는 부분이다.<sup>26)</sup> 그렇다면, 애당초 이 글의 앞에서 내세웠던 문제의식, 한국계 미국시인의 대표적인 두 주자인 테레사 차와 명미 김의 작품을 민족의 틀 안에서 보는 것과 미국시의 전체 지평에서 보는 것은 각각 어떤 다른 효과를 가져올까? 앞서 명미 김이 스스로 한국계-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거기 부과되는 다소는 일방적인(한국계) 독자들의 기대에 대해 시인 스스로 느끼는 짧은 사견을 소개했는데, 명미 김은 자신의 시작 활동에 영향을 미친 작가로 1930년대 객관주의(Objectivism) 시인 조오지 오펜(George Oppen)과 20세기 초반의 실험적인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을 지목하고 있다. 또 유대계 시인 폴 첼란(Paul Celan)의 작품에서도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추출할 수 있는 단서는, 언어 일반에 대해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기호의 지시성과 재현의 당위에 대한 시인들의 실험정신이다. 통일된 영문법의 규칙과 기호의 지시성을 과감히 져히는 발상은 언뜻 언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이나 사실은 시언어가 구현해낼 수 있는 언어의 해방적인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명미 김이 자아, 언어, 세계의 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방식은 일차적으로 여러 언어를 경험한 미국의 많은 다른 시인들, 가령 문화적 다양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미국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른 언어들을 경험한 크고 작은 시인들 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특히 그의 시는 동시대 미국의 가장 깊이 있는 시인

26) Brian Kim Stefans, "Remote Parsee: An Alternative Grammar of Asian North American Poetry," *Telling It Slant: Avant-Garde Poetics of the 1990*, ed. Mark Wallace and Steven Marks (Tuscaloosa: U of Alabama P, 2002) 43-78면 참조. L. Hyun Yi Kang, "The "Liberatory Voice" of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위의 책 *Writing Self, Writing Nation* 73-102면 참조.

중 한 명으로 널리 읽히는 시인 수전 하우(Susan Howe, 1937~)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과도 비견된다. 그 자신 시인이기보다는 비주얼 아티스트로 출발한 수전 하우는 『피타고라스의 침묵』<sup>27)</sup>에서 2차 세계 대전의 기억을 재구성하면서 문법적으로 무난히 잘 연결되는 정치한 구문이 아니라 푹푹 떨어지는 단어들의 분절된 마디들을 자주 쓴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나 대명사의 지시성, 시제의 일치 등 영어의 전통적인 문법적 권위를 마다하고, 소리 혹은 음성으로 연결되는 단어들의 분절된 의미를 하나의 그물망처럼 엮어 나가면서 전쟁의 기억을 독특한 방식으로 환기하고 있는데, 이는 명미 김이 전통 문법을 비틀어 다시 쓰는 역사 쓰기와 흡사하다.

이 두 시인의 비교가 그렇다고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 허먼 멜빌(Herman Melville), 찰스 올슨(Charles Olson)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전 하우의 시의 계보와 명미 김을 직접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니다. 여기에서 미국시 전통 안에서 한국계 미국시인을 들여다보는 시도는 다시 말하면 앵글로 아메리칸 문화 속에서 『한국계』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문화 안에서 『같은』과 『다름』에 대한 사유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다. 사실, 테레사 차와 명미 김 등 영어를 제2, 제3의 언어로 배운 작가들이 비단 한국계, 혹은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한 노릇이다. 허나 재미있는 점은, 유독 아시아계 미국시인들, 더 좁게는 한국계 미국시인들이 국내외의 여러 논의에서 여전히 민족의 틀 안에서 괄호 지워진 채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트루드 스타인이 자신의 시적 전통을 엘리엇이나 파운드가 일정 부분 빚진 유럽적 전통에 두지 않고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의 독특한 다문화에 뿌리박는 다성적 언어에 두고 있었던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 출신의 로즈메리 월드롭(Rosmarie Waldrop)이나 앤 타르도스(Anne Tardos) 등 많은 시인들이 영어를 제2, 제3의 언어로 배우고서도 앵글로 아메리칸 시의 전통 속에서 “함께” 논의됨으로써 이중 언어의 경험이 시에 작용하는 방식을 더욱 문제적으로 드러내보이는데 비하여, 명미 김이나 테

27) Susan Howe, *The Europe of Trusts*(New York: A New Direction Book, 1990) 참조.

레사 학경 차는(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족적 경험 속에 갈등 없이 포섭됨으로써 이들 작가들이 쉽게 화해하지 못하고 문제적으로 제시하는 언어와 민족적 정체성의 고민을 오히려 무화시키고 만다. 이들 시인들을 현대 미국시 전체의 지도 안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작업은, 그러므로, 큰 전통에 편입해야 안심할 수 있는 소수민족 문학의 오도된 열망으로 쉽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닐 것이다. 코넬 웨스트(Cornel West)가 「차이, 새로운 문화의 정치학」이라는 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시하여 非 앵글로 아메리칸 비평가 및 예술가들이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비판적 거리에 대해 제시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국계 미국시를 위시하여 소수민족 시학을 대할 때 큰 시사점을 준다. 즉, 주류 문화에 편입되고자 하는 무조건적 열망의 단계, 자신이 속한 민족 그룹을 따로 떼어내어 그 독자성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하는 단계, 혹은 주류 문화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4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적, 유기적 촉매”로서의 비평가상이다.<sup>28)</sup> 최근 영미학계에 유행처럼 떠오른 소수민족 시학이 거품을 뺀 균형된 형태로 비평적 감식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한국계 미국시인들의 작품을 동시대 미국시의 지도 안에서 들여다보는 작업은 그러므로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사이 깊게 파인 골을 인지하고 그 간극을 넘어서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시대 미국시인들, 혹은 미국시의 어떤 전통 안에서 한국계 미국시인들의 작품을 되짚어 읽는 작업은, 한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 사이에서 어떤 한 쪽의 고유함을 확인하는 선택의 방식에 기대기보다는 관계 안에서 함께 읽는 방식 안에서 그 의미가 더욱 충분히 살아나리라고 본다.

---

28) Cornel West, “The New Cultural Politics of Difference,” *The Cultural Studies Reader*. Ed. Simon During(London: Routledge, 1993) 256-67면 참조.

#### 4. 결론을 대신하여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영어를 말하면서 이산의 경험을 살아가는 한 국제 미국 작가들이 처해있는 딜레마는 바로 국가, 민족과 성이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결국은 자신이 결코 안전하게 거할 수 없는 공간에 있다는 자각일 것이다. 명미 김이 “어떤 것도 아니야 어떤 것도 아니야. 뭐가 모국어냐 뭐가 조국인지?”(Neither, neither // Who is mother tongue, who is father country? 29) 라고 묻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언어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 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다른 표현일 것이다. 김홍희는 테레사 차의 시각적 언어 예술을 일컬어, 이민당국이 수행하는 민족적 동일화 논리에 맞서 차이를 선언하고 의식적 창작 주체로써 기존 화단에 개입함으로써 후기 식민 페미니즘 예술의 정치적 효력을 감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를 이들 실험시인들의 시적 효과에 주목하여 이야기한다면 이민당국이 수행하는 언어적 동일화에 대한 가치전복의 방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sup>29)</sup> 외국인으로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테레사 차가 고백하듯,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근본적인 기능을 넘어, 언어의 또다른 관계와 더불어 분석과 실험을 허용하는, 의식적으로 강요된 고립에까지” 이르는 길이다.<sup>30)</sup> 이러한 차의 문제의식은, 앞서 언급했듯, 일상 속에서 문법적 법칙을 통하여 부여되는 언어의 권위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80년대 이후 미국시단의 ‘언어시파’가 지닌 문제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글에서는 테레사 차와 명미 김의 탈골된 문법의 기록들이 파편화된 해체의 기록이나 단

29) 김홍희, 「후기식민주의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차학경의 작품세계」 『관객의 꿈: 차학경 1951~1982』 (서울: 눈빛, 2003), 71면.

30) Cha, “Personal Statement and Outline of Independent Postdoctoral Project,” ca. 1978, Cha Archive.

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는 행위임을 밝히고 현대미국시의 지평위에 이들 시인들을 위치 지우는 것에 주목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어시운동과의 연대와 차별을 모색하는 작업은 다른 지면을 빌어 지속적으로 해나갈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 작업은 이산의 경험에 뿌리박은 아시아계 미국 시인들의 사적, 문화적 전치의 경험이 어떻게 언어와 기억, 의식, 소통의 더욱 보편적 탐구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작업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논의에서 초점이 맞춰진 ‘탈골된 문법’은 침묵으로 존재하거나 편향적으로 기술되어온 역사를 다시 쓰는 업을 짊어진 ‘한국계-미국시인’들의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하이픈의 의미를 되짚는 것으로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테레사 차는 한국적인가? 명미 김은 한국적인가? 미국적인가? 그 한국적/미국적인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자신의 뿌리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어긋난 문법의 기록으로서 이들 시가 엄연히 포스트모던 미국시의 공간을 함께 차지하는 작품으로 온당히 평가받을 때, 핏줄의 당김에 의존한 우리의 읽기 또한 그 차이와 연대의 공간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이들 작품의 정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하인즈 워드의 귀환이 한국인으로서의 귀환은 아니듯이, 명미 김과 테레사 차의 탈문법의 시화 또한 순수한 기원에 대한 향수를 거부하고 귀환과 재화합의 불가능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다. 이들이 직조하는 문법적 탈구의 언어들은 미국이라는 복합 문화 안에서 영어에 내포된 문화학과 정치학을 다시금 되문게 만들고, 언어적 재현에 내포된 벽과 가능성 모두에 눈뜨게 한다. 이제 문법적인 일탈로 완성되는 작품의 형식적 실험과 내적 구조는 그리하여 미국이라는 국가의, 문화의, 완고한 정체성에 대한 가장 지속적이고 내밀한 도전의 형태로 자리 잡는다.

## 참고문헌

- 김홍희(2003), 「후기식민주의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차학경의 작품세계」, 『관객의 꿈: 차 학경 1951~1982』, 눈빛, 71-83.
- 유선모(2001), 『미국 소수민족문학의 이해: 한국계 편』, 신아사.
- 임진희(1996), 「Theresa Hak Kyung Cha의 *Dictee*에 나타난 자아, 언어, 국가의 주제」, 『미국학 논집』, 28.1호, 205-227.
- 장근영(2004), 「한국계 미국 시인 김명미의 시에 나타난 국가, 젠더 및 언어」 『현대영 미시연구』 10. 2호, 153-174.
- 정은귀(2005), 「언어시운동과 찰스 번스틴」, 『21세기 문예이론』, 김성곤 편저, 문학사 상사, 168-175.
- Altieri, Charles(1995), “Images of Form VS. Images of Content in Contemporary Asian-American Poetry,” *Qui Parle* 9.1, 71-91.
- Bergvall, Caroline(2002), “Writing at the Crossroads of Languages,” *Telling It Slant: Avant-Garde Poetics of the 1990s*, Eds. Mark Wallace and Steven Marks, Tuscaloosa: U of Alabama P, 207-23.
- Cha, Theresa Hak Kyung(1995), *Dictee*, Berkeley: Third Woman P.
- Howe, Susan(1990), *The Europe of Trusts*, New York: A New Direction Book,
- Kang, L. Hyun Yi(1994), “The ‘Liberatory Voice’ of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Writing Self/Writing Nation: Essays on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Eds. Elaine H. Kim and Norma Alarcon, Berkeley: Third Woman P, 73-99.
- Kim, Elaine H(1994). “Poised on the In-between: A Korean American’s Reflections on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Writing Self Writing Nation: Essays on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Eds. Elaine H. Kim and Norma Alarcon, Berkeley: Third Woman P, 3-30.
- Kim, Myung Mi(1991), *Under Flag*, Berkeley: Kelsey St. Press, 13-15.
- Lew, Walter K.(1995), *Premonitions: The Kaya Anthology of New Asian North American Poetry*, New York: Kaya Production.
- Lewallen, Constance M(2001), *The Dream of Audience: Theresa Hak Kyung Cha*

- (1951~1982), Berkeley: U of California P.
- Lowe, Lisa(1996), *Immigrant Acts*, Durham: Duke UP.
- Spahr, Juliana M(1996), "Postmodernism, Readers, and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College Literature* 23.3, 23-43.
- \_\_\_\_\_ (2001), *Everybody's Autonomy: Connective Reading and Collective Identity*, Tuscaloosa: U of Alabama P.
- Stefans, Brian Kim(2002), "Remote Parsee: An Alternative Grammar of Asian North American Poetry," *Telling It Slant: Avant-Garde Poetics of the 1990s*, Eds. Mark Wallace and Steven Marks, Tuscaloosa: U of Alabama P, 43-75.
- Stevens, Michael(1986), *The Dramaturgy of Style: Voice in Short Fictio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 Cornel West(1993), "The New Cultural Politics of Difference," *The Cultural Studies Reader*. Ed. Simon During. London: Routledge, 256-67.
- Wong, Shelley Sunn(1994), "Unnaming the Same: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Writing Self/Writing Nation: Essays on Theresa Hak Kyung Cha's Dictee*, Eds. Elaine H. Kim and Norma Alarcon. Berkeley: Third Woman P, 103-40.

원고 접수일: 2006년 00월 00일

게재 결정일: 2006년 00월 00일

**ABSTRACT**

---

History Rewritten in Dislocated Grammar:  
Exploring Cultural Politics of Korean-American Poetry'

Eun-Gwi Chung

Although the politics of identity intertwined with gender, ethnicity, and nationality have often been celebrated as a means of reading Korean-American writers, the role of the experiment in language has yet to be explained. Focusing on select works by Theresa Hak Kyung Cha and Myung Mi Kim, two representative Korean-American poets, this essay evaluates the form of dislocated grammar as a way of representing history and furthermore repositions their experimental poetics within the contemporary landscape of American poetry, not as a form of alienation but as a form of constellation.

For second-or third-language writers such as Cha and Kim, and others, the stylization of multiple languages and the decapitated forms are used very directly to enhance an awareness of dis/locatedness, thus giving readers a space to rethink cultural politics of American language. Structural and thematic concerns will be that of finding ways of grappling with the personal relocation and demonstrating a critique of, rather than a faith in, the politics of identity in America. This essay, approaching the issue of language experiment and its inaccessibility and incoherence, touches a linguistic form of cultural politics, the

neglected part in Cha and Kim's works and problematizes the meaning of 'hyphen' in the works of Korean-American poets. As writers who have been under siege by the practice of standardization, the primary concerns of Theresa Hak Kyung Cha and Myung Mi Kim are not just resistance, but rather finding a channel for the intersection of language as a site of possibility in America. The literary forms of dislocated grammar alerts us to the existence of alternative histories but also alternative forms of its representation. Diaspora as it is figured in these works is not in any way associated with an essential ethnic identity. Rather, it is something transnational that communicates across boundaries, re-questioning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of America.